

2026년 9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총 인원 (명)			
1	'26.9.29.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8/10	6	1	15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김욱 위원장, 백강희 부위원장, 문선혜 위원, 박은숙 위원
최승인 위원, 조원희 위원, 박지현 위원, 김혜영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재우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최기웅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재근 실무담당(국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채널 구성·운영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1	-	12	1	-	-	14	-	14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4	-	-	14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보도	<교권 관련 보도> '교권 보호관' 보도 관련해서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볼 때 교권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음. 교권 이면에 교육권 침해 등 상반된 내용도 있어서 어떤 부분의 교권이 필요하고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함	교권보호관 신설 관련 뉴스 등을 통해 단순한 도입뿐만 아니라 과제까지 짚어 보도함 <9월5일>대전도 '참교육' 이달 말 교육활동보호관 도입 <9월6일>악성 민원에 변호사 배정 <26. 9월 조치>	'26.8월
보도	<대덕구 의회 파행 관련> 대덕구 의회가 석 달 가까이 의장을 선출하지 못해 원 구성에 실패하면서 정치권의 입장, 구정 현안에 미치는 현안 등 관련 보도가 있었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제도나 정치적 배경 등 구조적 분석이 부족했는데 지방의회의 책임, 주민의 견제 방법 등 해결책 제시 보도도 함께 해주길 바람.	아래 관련 보도를 지속하고 있음 <10월 3일> 100일간 허송세월 의정비는 인상? <10월 12일> 구청장 단식 주민 항의에도 대덕구의회 파행 지속 <10월 13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 '회초리로도 모자라' <26. 10월 조치>	'26.9월
보도	<여성 경차 주차 관련> '벽에 선 하나 그었더니 문콕 걱정 줄었다' 보도에서 "여성운전자도 오는 경차도"라는 표현은 성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시청자게시판에 지적을 받아 영상에서는 수정했지만 홈페이지 기사원고에는 아직 수정되지 않고 있음.	홈페이지 관련 기사 내용 중 "여성운전자도 오는 경차도"를 수정된 해당 영상과 일치할 수 있도록 "경차도"로 수정 완료함 <26. 10월 조치>	'26.9월
보도	<자자체 정책 비교 관련> 충남과 대전의 청년 정책 평가가 다르다는 보도를 보면서 새로운 지방 정부에서 하는 대전, 세종, 충남 세 지역의 정책들을 단편적으로 다루지 말고 그 이면에 대한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깊게 다뤄주면 같은 정책을 비교하는데 좋을 것 같음.	충청권 전체의 정책 사안들을 보도하고 있음 <9월20일> 대전 방산..천안아산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9월30일> 매달 15만 원 기본소득 효과 끝? <10월2일> '법적 근거 필요'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26. 9월-10월 조치>	'26.9월
교양	<홈페이지 개별 프로그램 게시판> 매월 전체 시청자 의견 처리건은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음. 하지만 프로그램별 시청자 의견은 많지는 않지만 답변을 달고 있지 않아서 관심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우려스러움	홈페이지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의견 게시판을 살펴보고 개별 시청자 의견 게시판을 포함해 잘 활용되지 않는 메뉴들은 삭제함. 다만 잘 활용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게시판은 유지시킴. <26. 9월 조치>	'26.8월
총 건수		5 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 공개 (<https://tjmbc.co.kr/MinutesOfTheMeeting>)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 고 (총 선임기간)
위원장	김욱	배재대학교 총장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문화단체	25.5.1~27.4.30
부위원장	백강희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문선혜	전원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5.5.1~27.4.30
위원	박은숙	지역문화정책연구소 대표	원도심문화예술인행동	문화단체	25.5.1~27.4.30
위원	이현욱	우송대 글로벌미디어학과 교수	한국영화교육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최승인	초록우산 충청권역총괄본부장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소외계층대변	25.5.1~27.4.30
위원	조원희	(주)지란지교시큐리티 대표이사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경제단체	25.5.1~27.4.30
위원	조정현	대전위캔센터장	대전YWCA	여성단체	26.5.1~28.4.30
위원	박지현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장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26.5.1~28.4.30
위원	김혜영	대전광역시가족센터장	대전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인권단체	26.5.1~28.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방송 편성	<아시안게임 편성 관련> 지상파 3사에서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정규 프로그램 편성 취소가 과한 것 같음. 국제 경기 소식은 예전과는 달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파 3사가 아시안게임 중계에 할애하는 시간이 지나친 것이 아닌지 고민해 주길 바람.	평일 아침 8시50분부터 밤 10시까지 아시안게임 편성이었음. 본사 릴레이방송을 받아야 판매된 광고에 대한 배분을 받기 때문에 지역사 마음대로 로컬방송을 결정할 수는 없음. 본 계열사 제작 회의 때 말씀하신 의견과 일부시간대를 로컬 따로 편성하는 의견을 전달 하겠음.	○		
보도	<축제 성과에 대한 통계 관련> 영시 축제 등 축제와 관련해 제시된 여러 가지 통계나 평가가 실제 조사에 근거한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산출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면 좋겠음. 방문객 수와 경제효과 수치는 축제 성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임. 산출 기준과 조사 주체를 함께 제시해 주길 바람.	지역축제의 핵심은 우리 지역과 어떻게 연관 짓고, 지역 골목 상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효과라고 생각함. 그래서 지역경제 효과를 약간 부풀려지기 쉬운 부분인데, 성과에 대한 통계나 근거 출처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음.	○		
보도	<축제 정체성과 콘텐츠 관련> 축제 토론을 하면서 빵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빵 이외에 다른 축제가 있는지, 어떤 스토리를 담아야 하는지 등 축제의 이벤트가 될 수 있는 콘텐츠를 갖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논의가 됐으면 좋겠음.	축제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대전의 상징은 과학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기 보다는 형식적인 축제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축제 콘텐츠 발굴에 대한 고민과 문제 제기를 해나가겠음.	○		
보도	<사전 계도성 보도 관련> '연휴가 끝난 고속도로 여전히 쓰레기 산' 보도를 보면서 재래시장의 위생문제, 원산지 표시 문제, 음주 운전,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소각, 식품 위생 등 명절 즈음에 예방 차원의 사전 보도 후 사후 보도가 이어졌으면 좋겠음.	명절 휴게소 쓰레기 관련 보도는 기획된 뉴스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보도하는 것도 아이디어라고 생각함. 캠페인 같은 주도형 보도보다는 같이 고민하고 반성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준비하겠음.	○		
보도	<교환 뉴스 관련> 8월 24일, 25일 대전MBC 뉴스에서 보도된 한남대 철도 직선화 공사 관련 상송되는 보도가 광주MBC에서 9월 16일에 보도가 됐음. 뉴스를 교환할 때 2~3일 정도 시차를 두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나쁜 소식을 몇 주 후에 타 지역에서 보도한 이유가 궁금함.	교환 뉴스는 같은 권역인 MBC충북과 <뉴스투데이> 한 꼭지 정도 하고 있음. 대전MBC 아이템이 보편적이어서 타 지역에서 방송하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도 국장 전체 회의 때 공유해서 주의 시키도록 하겠음.	○		
보도	<대덕구 의회 파행 관련> 대덕구 의회가 석 달 가까이 의장을 선출하지 못해 원 구성에 실패하면서	대덕구 의회 파행 문제로 구정 현안들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의회 무용론까지 번지고 있음. 전국에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정치권의 입장, 구정 현안에 미치는 현안 등 관련 보도가 있었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제도나 정치적 배경 등 구조적 분석이 부족했는데 지방의회의 책임, 주민의 견제 방법 등 해결책 제시 보도도 함께 해주길 바람.	여야 동수인 의회들도 많은데 왜 대덕구만 되풀이 되고 있는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취재하겠음.			
보도	<휴게소 다회용 컵 관련> 휴게소에서 일회용품 문제를 다룬 점은 좋았으나, 다회용 컵 사용의 불편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으면 함. 다회용 컵의 환경적인 효과에 대한 검증 보장 등 지속적인 보도가 필요해 보임. 다회용 컵의 회수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후속 보도를 통해 순환 구조가 어떻게 정착되는지 지켜보면 좋겠음.	휴게소 다회용 컵은 도로공사와 연계해 충남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한 것이라 첫 시도에 주목했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회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환경 이슈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겠음.	○		
보도	<명절 휴게소 쓰레기 관련> 쓰레기 산의 현황을 보여주는데 집중하다 보니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는 원인에 대한 내용은 없었음. 행정상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불법 투기에 대한 과태료 등 이런 내용들도 담았으면 좋겠음.	휴게소 쓰레기 문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쌓여서 발생하는 데, 쓰레기 추적 이력제나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문제를 예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보도	<기숙사 카드 결제 관련> '대학 기숙사비 카드 결제 15% 불과, 충남대 이용자 최대' 보도에서 충남대 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강조한 것인지 정책 허점이 있다는 것인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명확했으면 함. 카드 수수료나 분할 납부 회수 문제 등 정책상 허점들도 함께 보도했으면 좋겠음.	기숙사 카드 결제는 학칙에 따라 많이 다른데, 대학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소비자 차원에서 본다면 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해 보임. 충남대 보도는 조금 더 활성화 되어 있다는 통계 기사였던 것 같은데 그 이면까지 짚어 보도록 하겠음.	○		
보도	<여성 경차 주차 관련> '벽에 선 하나 그있더니 문콕 걱정 었다' 보도에서 "여성운전자가 모는 경차도"라는 표현은 성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시청자게시판에 지적을 받아 영상에서는 수정했지만 홈페이지 기사원고에는 아직 수정되지 않고 있음.	경차 주차 표현은 지난번 말씀 드린대로 여성과 직결된 잘못된 표현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스크를 더 철저히 하겠음. 홈페이지 기사는 확인해서 영상과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음.	○		
보도	<시민들 의견 반영 관련> '지역 축제 계절, 정체성을 묻다'에서 전문가와 관계자만 출연했는데 축제를 찾은 시민, 청년상인,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짧게라도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주면 시청자들이 받아들일 때 더 생생한 토론이 될 것 같음.	축제에 관련된 주변 상인들이나 실제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주는 부분은 사전에 시민들의 인터뷰를 VCR로 제작할 수 있음. 의견 수렴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고려하겠음.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자자체 정책 비교 관련> 충남과 대전의 청년 정책 평가가 다르다는 보도를 보면서 새로운 지방 정부에서 하는 대전, 세종, 충남 세 지역의 정책들을 단편적으로 다루지 말고 그 이면에 대한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깊게 다뤄주면 같은 정책을 비교하는데 좋을 것 같음.	광역 지자체들이 같은 정책을 놓고 다른 평가를 받거나 다른 해법을 내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서로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정책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고도화 역할을 하겠음.	○		
보도	<뉴스데스크 동일 아이템 관련> 세종시 대리운전 기사가 취객 승객에 의해 담뱃불로 화상을 입었다는 단독 보도 내용이 같은 날 서울과 대전 뉴스에서 비슷한 화면으로 동일하게 방송이 됐는데 서로 다른 내용으로 방송 되면 좋겠음.	대전MBC 단독 기사들이 서울 본사로 올라가는 지역기사 중 1위를 다룰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음. 인력 구조상 서울에 나갈 것을 예측하고 다른 뉴스로 대체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용상 구성을 달리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겠음.	○		
교양	<교양 프로그램 아이템 중복> <오늘M>,<테마기행 길>,<전국이 보인다>는 모두 볼거리, 먹거리 등 생활정보 및 기행형 포맷으로 시청자 입장에서 서로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오늘M>은 지역민의 생활 밀착형 정보에, <테마기행 길>은 여행과 문화에 집중해서 프로그램 성격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음.	<테마기행 길>은 지역MBC 16개사가 돌아가면서 제작을 하고 있음. <오늘M>은 지역사별로 제목을 달리해서 운영하는 매거진 프로그램으로 문화, 화제성, 레저 등 2개씩 아이템을 공유하고 있음. 제작진 회의 때 <오늘M>에서 생활아이템을 다루는 의견을 공유하겠음.	○		

2026년 9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6년 9월 29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8명)

김옥 위원장, 백강희 부위원장, 문선헌 위원, 박은숙 위원,

최승인 위원, 조원희 위원, 박지현 위원, 김혜영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진종재 사장, 이재우 경영국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임세혁 편성국장,

최기웅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재우 경영국장

오늘 회의는 8분 참석해 주셨는데요.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을 말씀드리고 본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월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은 총 3건입니다. 진행자 불만 1건, 자막 불만 1건, 기타 문의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바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진종재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지난주에 대전MBC 창사6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회사가 62년 동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시청자 대표로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62주년을 맞이해서 좀 더 지역 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데 전념하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이번에는 시청자 위원을 대표해서 김옥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신 후에 정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지난달에 회의 참석을 못했는데 백강희 부위원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은 가능한 빠지지 않고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원희 위원님부터 의견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 위원

9월 7일 <시시각각>에서 ‘지역 축제의 계절, 정체성을 묻다.’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대전 영시 축제의 폐지 논쟁을 계기로 해서 지역 축제의 성공과 정체성이라는 문제를 함께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방문한 축제와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가 다르다는 설문 결과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시 축제는 방문 경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대전의 대표 축제로는 뽕 축제가 더 많이 선택됐다는 점은 축제의 흥행과 지역의 정체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영시 축제의 폐지를 단순히 찬반의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대형 공연이나 집회 중심의 축제가 과연 대전만의 이야기를 충분히 담아냈는지 질문을 했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대전역과 철도 원도심의 역사 등 지역이 가진 자원이 축제의 콘텐츠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생 각했습니다.

다만 시청자 입장에서 방송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통계나 평가가 실제 조사에 근거한 것인지, 축제의 경제적인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산출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방문객 수나 경제 효과 같은 수치는 축제의 성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산출 기준이나 조사 주체를 함께 제시해 주면 시청자가 내용을 더 신뢰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후반부에 대전의 여러 자원을 연결하는 축제 생태계와 충청권 관광 연계 방안까지 폭넓게 다룬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많은 대안이 한꺼번에 제시되면서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차별성이 드러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을 압축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여줬다면 시청자들에게 선명하게 전달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을 보면서 지역 축제를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의 역할이 축제의 성공과 실패를 단정하기 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전MBC가 지역의 현안을 다룰 때 찬반 의견을 심도 있게 다뤄서 시청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통계 근거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전달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승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인 위원

<시시각각> ‘지역 축제의 계절, 정체성을 묻다.’를 봤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덧붙이자

면 예전에는 축제가 즐기는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선거나 정치가 개입되면서 지역민 입장에서 내 세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영시 축제도 과거에는 축제에 열매가 들어갔고 효과가 있었는지 찬반 논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시기적절하게 지역 축제가 많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단체장들의 변경으로 축제가 더 활성화되고 많아질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내 세금이 얼마큼 들어갔는지를 떠나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중에 대전 축제 얘기를 하면서 빵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빵을 매개체로 하는 축제도 물론 좋지만 <시시각각>에서는 별개로 다른 축제가 있는지, 어떻게 스토리를 담는 걸 만들어야 될지 이야기 했었어야 했는데 결국은 내용을 보다 보면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뭔가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결국 다시 빵으로 넘어와서 빵 플러스 알파가 되는 축제를 계속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대전에 빵 밖에 없나를 생각했습니다. 토론프로그램에서는 빵 이외에 다른 축제의 이벤트가 될 수 있는 콘텐츠들을 갖고 있는 현장 전문가님들도 참여시켜서 다른 것도 있다는 내용으로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9월 28일 뉴스투데이에서 ‘연휴가 끝난 고속도로 여전히 쓰레기산’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늘 명절이 끝나면 고속도로에 휴지가 버려지고 개인 쓰레기를 버리는 무단 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지난번 명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래시장의 위생 문제, 원산지 표시 문제, 음주 운전,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소각, 식품 위생 등 명절 즈음에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계도돼야 하는 부분을 사전 보도한 다음에 사후에 이런 보도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발 프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레기산이 있더라”, “시민 정신이 모자란 것 같다.” 라는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예방 차원의 보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9월 29일에는 중부권 암 수술 자체 충족률이 35.3%밖에 안 되고 전국 최저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의료 대란이나 지역 의료 공백은 소멸 도시뿐만 아니고 광역 단위에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는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중증 암 환자나 심혈관, 소아 분만 등 긴급 의료 체계에 대한 부분도 <시시각각>에서 다뤄주셨으면 해서 살펴보니 작년에 3번 정도 의료 관련 내용들을 다뤄주셨습니다.

통계치가 나올 때 보면 암이라는 건 아직도 큰 병중에서 하나에 속해 있고 그 것 때문에 우리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의료 체계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에 관련된 얘기, 지역 기반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다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거리 지역 뉴스를 교류한다는 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번에 쓰레기 투기 관련된 내용은 9월 28일에 여수MBC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8월 24일, 25일에 대전MBC 뉴

스에서 한남대학교를 관통하는 철도 직선화 공사를 학교와 학생들은 중단을 요청하고 있고 철도공단에서는 안전성을 확보해 진행한다는 상충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9월 16일에 광주MBC에서 아침 뉴스로 보도가 됐습니다. 시차를 2~3일 두고 같은 뉴스가 보도되는 건 이해되지만 이렇게 날짜가 몇 주 늘어지기도 했고 좋은 뉴스도 아니고 나쁜 뉴스인데 타 지역에서 왜 9월에 보도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62년 동안 지역 방송으로서 큰 업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언론이 갖고 있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기능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애쓰셨습니다.

김옥 위원장

최승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은숙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은숙 위원

이번 달 보도 관련해서 3건 정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대덕구 의회 파행 보도입니다. 대덕구 의회가 석 달 가까이 의장조차 선출하지 못하고 원 구성에 실패한 상황을 뉴스 및 리포트로 지속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라든지 정치권의 입장 차이까지 함께 전달했는데요. 단순히 의장 선출이 안 됐다는 정치권 내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의회 기능 중단이 구정 현안이라든지 주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은 점이 좋았습니다.

주민들의 항의 방문이라든지 인터뷰를 통해서 지방의회 파행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주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당연한 부분이지만 양쪽 정당의 입장과 해법이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제시해 주시고 정치적 쟁점을 한쪽 주장만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공정 보도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으로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에 비해 감시가 소홀해지기 쉬운데 장기간 이어진 파행을 반복적으로 다룬 것은 지역 언론이 지방자치 감시 역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웠던 점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은 보도의 횟수에 비해 조금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3개월 가까이 의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제도적이나 정치적 배경을 깊게 분석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의 항의 방문 과정에서 제목을 ‘주민이 뿔났다’ 다소 자극적으로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직관적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실제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근거 없는 표현이 아님니다만 제목 자체가 갈등과 분노를 강조하는 프레임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대덕구 주민이다 보니 참여하신 분들의 면면이 보이는데 화환이라든지 참여자 몇몇들이 관변 단체 위주의 참여였고 주민의 목소리라고 표현하기에는 약간의 부적절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대덕구 석 달째 파행 주민 피해 우려’ 같이 사실 중심의 제목은 어땠

을까 생각합니다. 직관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전달하고자 제목을 설정한 부분들이 이해되면
서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판에서 끝나기보다 대덕구 의회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정상적
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든지 지방의회의 책임, 주민의 견제 방법 등 해결책까지 제시하
는 보도가 함께 있었다면 감시 보도의 완성도가 더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기초
단체다 보니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속적으로 보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두 번째는 9월 8일에 보도된 ‘백제사 왜곡’ 초등 국정교과서 수정 배포와 관련해서 대전MBC
가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에 역사적 근거가 없는 삼천궁녀 의자왕 표현이 노랫말 인용 형태로
포함된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서 수정 교과서가 배포됐다는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백제사는 대전 충청권의 역사 문화와 밀접한 주제입니다. 지역 방송이 지역
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문제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문제 제기를 통해
교과서가 실제로 수정되고 삭제되는 결과까지 후속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지역 언론의
감시나 검증 보도가 실제 정책이나 공공 영역의 변화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게 본 보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9월 27일 전국 최초 ‘휴게소 다화용 컵’, ‘일회용품 줄여요’ 보도 내용입니다. 환경
과 자원 순환이라는 전국적인 의제를 지역의 실제 사업과 연결해서 전달했다는 점이 좋았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익숙한 공간을 통해 일회용품 문제를 쉽게 전달하고 충남의
6개 휴게소에서 다화용 컵을 도입하고, 반납 시 보증금 환급이나 포인트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읽기 쉽게 전달했다고 봅니다.

다만 휴게소 이용객이 다화용 컵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게 편리함뿐만 아니라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칫 캠페인성 보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담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성이나 사실성이 높아
졌을 것이고 또 다화용 컵의 환경적인 효과에 대한 검증 보강이 됐다면 심층 보도가 되지 않
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전이 철도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기차역에도 자원 순환에 대한 의제가 확산됐
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대전MBC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옥 위원장

박은숙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강희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뉴스데스크 세 가지 보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인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올
추석도 쓰레기산’ 보도 내용은 생각지 못했는데 사전 보도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말씀은
흥미롭게 느꼈습니다. 뉴스 특성상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보도하는 게 부
담되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보도 날짜가 추석 연휴가 다 끝난 시점인 9월 28일이었
는데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5일에 방영했어도 괜찮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찍
귀경 길에 오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25일이나 주말 정도에 보도가 나갔어도 최승인 위
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전 보도 성격을 충분히 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도에서 올 추석에도 ‘쓰레기 산’의 현황을 보여주시는 데만 집중하셨는데 왜 이러한 행
위가 매년 반복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MBC
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올 추석에도 함께 다뤘던 내용인데요. 다른 보도 내
용도 찾아보니까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는 원인에 대해서 짚은 내용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봤
습니다. 단순히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불법 투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부분도 함께 짚어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9월 25일 ‘대학 기숙사비 카드 결제 15% 불과, 충남대 이용자 최다’ 보도입니다.
기숙사비가 워낙 높다 보니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카드 결제를 하거나 혹은 분
할 납부를 허용하는 정책입니다. 제목이나 내용만 보면 좋은 정책이고, 충남대 학생들의 이용
자가 가장 높다는 좋은 뉴스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만큼 충남대 학생
들의 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여러 정책에 허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대 학생 이용자가 높다는 것인지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계치를 보여주시는 데 중점을 두셨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의미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분할 납부나 카드 결제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에
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립대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도 있겠지만, 좋은
정책이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여
율이 저조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MBC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 보도들이 사립
대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그런 프레임으로 이끌고 가는 부분들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 결제 수수료가 증가하면 고스란히 학생들의 기숙사비 인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이 갖고 있는 허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종합
적으로 다루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 입대나 자퇴하는 경우 분할 납부하게
되면 회수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고심이 많은 정책입니다. 그런 내용
도 있다는 점 함께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6월 7일자 공주시 수직 주차선 관련해서 ‘벽에 선 하나 그었더니 문록 걱정 줄었다’라는 보도입니다. 시청자 의견 게시판을 살펴보다가 6월 7일자 보도가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 운전자가 모는 경차도” 표현 때문에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성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같다는 측면에서 지적되었던 보도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깊게 못 봤는데 시청자 게시판을 본 후 알고 보니 그렇게 들렸습니다. 모르고 보면 넘길 수 있는 문제인데 알고 보면 암묵적 편견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이 모는 경차’ 혹은 ‘운전 미숙자가 모는 경차’ 비슷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추후 보도 내용에 있어 이런 의견이 적극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보니 기자 멘트에서는 “여성 운전자가 모는 경차도”에서 “여성 운전자가 모는”을 빼고 “경차도”라고 수정했는데요. 원고에는 “여성 운전자가 모는”이라는 용어가 여전히 있습니다. 기자 멘트만 들어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혜영 위원
저도 <시시각각>에서 방송한 축제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조원희 위원님과 최승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시각각>을 보면 지역의 의제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의제를 잘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뢰가 갔습니다. 저도 축제 부분에 관심을 갖고 봤는데요. 대전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대전은 축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각 주제별 축제도 많이 있고 각 구별로 축제도 있다 보니 남발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역 축제 계절, 정체성을 묻다’ 편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축제 규모와 방문객 수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지역만의 축제다운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와 관계자 토론회에 시민의 목소리가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축제를 실제 찾은 시민, 청년 상인,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짧게라도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주고, 토론이 끝난 후에 우리 축제가 어떤 것이 바뀌어야 할지 구체적인 과제까지 정리해 준다면 시청자들이 토론을 자신의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영시 축제 때마다 피약별에 나가서 부스 운영을 했습니다. 9일 내내 직원들과 아스팔트의 뜨거운 열기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영상에 담아서 보여준다면 토론이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전문가 토론 수준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토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작은 문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의견은 대전MBC 교양정보 프로그램을 펼쳐서 한번 봤는데요. 9월은 아시안게임이 많아서 8월 중순부터 살펴보고 느껴지는 장르와 포맷의 중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프로그램 회차별 내용들을 봤을 때 <오늘M>, <테마기행 길>, <전국이 보인다>는 모두 화제의 현장, 볼거리, 먹거리, 사람 중심으로 생활정보와 기행형 포맷이었습니다.

각각의 프로그램이 차이가 있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어떤 것이 다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테마기행 길>의 경우 최근 12회를 살펴보니 대전 세종 충남을 다룬 회차는 없었고, 맛집, 특산물, 마을 힐링, 여행 소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오늘M>도 5회 정도 봤는데 22개의 아이템이 여행 먹거리, 볼거리 콘텐츠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역할을 선명하게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M>은 지역민의 일상, 생활에 밀착한 정보, <테마기행 길>은 여행 지역, 문화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분명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청자들도 선택하기 더 분명해 질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돌봄 가족이나 1인 가구, 아동, 청소년 등 실질적으로 지역민하고 연결된 삶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과 연결된 생활 의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프로그램의 색깔을 더 선명하게 해서 대전MBC만의 지역성과 다양성이 프로그램 전체에 선명하게 보여 지면 좋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지현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지현 위원
지난 8월에는 사건 사고가 많아서 사건 사고 중심으로 보도가 돼서 힘들었는데 9월에는 명절이 있어서 그런지 전주부터 방송됐던 <뉴스데스크>에서는 가족 단위 여행이라든지 명절 분위기에 대한 소식을 미리 전해주면서 훈훈한 분위기가 많았던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로서 뉴스를 보는데 모처럼 즐겁게 봤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9월 17일 추석이 다가오면서 실내에서 화재 대응 요령을 설명해 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요리하다 기름이 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건을 덮는다든지, 야채로 한다든지 대응책을 미리 알려주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화재의 문제 등을 후속 보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9월에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자칫하면 큰 사고로 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보도의 역할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시청자 입장에서 유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월 27일 공주휴게소에서 전국 최초로 다회용 컵 사용을 시작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휴게소를 찾는 사람들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나중에 회수돼서 나에게서는 어떤 이득도 있고, 환경을 위하는 것까지 이어진다면 누구나 동의할 것 같다.”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도되었습니다.

궁금했던 건 휴게소에서 다회용 컵을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납이 되는지 입니다. 설명에서는 정부 세종청사, 충남도청에 반납함이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 정도만 안내가 되었습니다. 휴게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서 집에 도착하게 되면 주변에 가까운 인프라가 얼마큼 있는지 아니면 현재 시작하고 있다면 이후에 어떻게 더 확대되는 게 필요한지 이런 반납에 대한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서 회수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다회용품 사용과 관련해 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텀블러 쓰거나 공유 텀블러도 시도 되고 있지만 꾸준히 정착되기 어려운 게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회수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 이어져서 보도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내용으로 충청남도에서 시작된 거니까 후속 취재를 통해 어떻게 정착되는지 시청자로서 계속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새롭게 지방 정부가 들어선 후 다양한 정책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입장으로서 뉴스 보는 것이 즐겁기도 합니다. 9월 20일 방송에서 충남도가 청년 정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수상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9월 28일에는 대전은 청년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대전시에서 원래 추진하고자 했던 청년 기본소득 등이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이 잘 되는 이유와 대전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시청자로서 궁금했습니다. 대전에 사는 청년들이 볼 때 실망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다 있을 텐데 대전 세종 충남 세 지역에서 새로운 지방 정부가 펼치는 정책들을 단편적인 내용으로만 다루지 않고 입법 되지 못하는 이유 등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지면 세 지역을 보면서 시청자로서 정책을 비교하는 데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송전탑 구간 변경 관련해서도 9월 17일에 충남도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는 8월에 송전탑 지방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걷기 행진이 서구청을 방문해 반대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항의하는 일들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방 정부 정책 뉴스 보도를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책 모니터링도 함께 됐습니다. 똑같은 정책을 두고 대전 충남 세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라지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시청자가 보게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많은 정책 보도와 그 이면에 대한 부분들도 더 깊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9월 16일 <뉴스데스크>단독 보도에서 세종시 대리운전 기사가 취객 승객에 의해서 담뱃불로 이마에 2도 화상을 입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중앙 <뉴스데스크> 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 끝나자마자 대전MBC 뉴스에서도 똑같이 단독 보도로 비슷한 화면으로 방송됐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형태의 뉴스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시청자 입장으로서 똑같은 뉴스가 왜 방송되는지, 다른 내용으로 채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문선헤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문선헤 위원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뉴스는 JMS 정명석 관련 기획 시리즈를 유의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법조인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을 모를 수가 없고 이 사건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을 정도로 여파가 큰 사안입니다. 독심을 갖고 잊어지지 않도록 기획 보도를 통해 아젠다를 계속 일깨워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용감하면서 의미 있는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명석 사건은 사건 자체만으로도 엄중하지만 정명석의 수형 생활이나 재판 과정에서도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까지 독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추적 관찰하셔서 최종 결과까지 보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양 부분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흐뭇하고 마음이 따뜻한 콘텐츠가 많았습니다. <오늘M> 9월 17일자 방송된 콘텐츠 중에서 재미있게 본 것은 공주 산성시장에 있는 떡집을 소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젊은 세대 사이에서 떡 열풍이 상당히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세대 간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뭔가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아이템 선정을 시의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당 편에서는 자녀들이 가업을 잇고 명맥을 이어나가는 부분이 담겨서 흥미롭게 봤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건 인터뷰를 길고 자세하게 했으면 했는데 아무래도 분량 때문인지 짧게 편집돼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대전MBC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상파

3사에서 최근에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정규 프로그램 편성 취소가 과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예전과는 달리 국제 경기에 대한 소식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접할 수 있고 아시안 게임은 예전만큼의 집중도나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가 아시안게임 중계에 할애한 시간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옥 위원장

문선혜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수차례 시청자위원회를 진행하면서 특히 오늘 회의는 알찬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 열심히 준비해 주셨고, 일곱 분 모두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회사측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기웅 보도국장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길게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조원희 위원님 말씀하신 <시시각각> 지역 축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요즘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처음에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축제입니다. 실패한 축제도 많아서 축제의 성공 여부를 담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지역성과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지 또 지역 상권들, 특히 골목 상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뉴스나 <시시각각>을 통해서 다뤘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계 근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경제 효과라고 하면 약간 부풀려지기 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자체들이 내는 성과들은 통계의 근거나 출처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서 공신력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최승인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전의 축제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 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전의 상징은 과학입니다. 하지만 과학 축제가 어떤지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인 축제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기보다는 상징적인 부분에 그쳐서 아쉬운데 콘텐츠를 어떻게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대박이 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고민들이나 문제 제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천 같은 경우 김밥 축제가 뜬금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젊은 층에 소구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쓰레기 관련된 내용들은 추석이든 설이든 연휴가 끝나고 나면 쓰레기가 있을 것이다 하고 보통 예상을 합니다. 기획된 뉴스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보도하는 것도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가 제일 많은 천안 휴게소를 연휴 전에 가서 깨끗한 모습들을 촬영해 놓고 연휴 끝나고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계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시민의식이

같이 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언론사 중심의 기초 질서 캠페인 같은 걸 진행했는데 이런 주도형보다는 같이 고민하고 반성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MBC 뉴스가 광주MBC에 방송된 부분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교환 뉴스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MBC충북은 같은 권역이라서 월요일 <뉴스투데이> 한 꼭지 정도만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뉴스가 보편적인 아이템들을 다루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서 광주 대구 부산에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최승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이나 그 주 정도에 시의성 있게 방송해 주면 좋은데 뜬금없이 한 달 뒤에 나온다면 당황스럽습니다. 시제도 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체 보도국장들이 공유할 때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숙 위원님께서 대덕구 의회 파행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한 부분들을 강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덕구의회가 기초의회지만 결국 지방자치단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구정 현안들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서 의회 무용론까지도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들 스스로 각성해야 하는데 중재안도 거부된 상태입니다. 여야 동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전국 지자체 중에 여야 동수인 의회들도 많습니다. 대덕구의회는 처음도 아니고 왜 같은 일들이 네 번째 되풀이 되고 있는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속 주목하고 보도하겠습니다.

백제사 역사 왜곡 보도는 스트레이트였는데도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과서에 잘못 기재된 것들은 교육계 쪽에서 수정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런 변화들이 정말 크든 작든 이끌어낸 부분들을 계속 주목하고 팔로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 다회용 컵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도로공사와 연계되면서 충남 지역만 우선적으로 시행을 한 겁니다. 아마 다회용 컵이 제일 도입되기 어려운 곳이 휴게소일 겁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주목했던 건 회수의 문제입니다.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세종청사, 충남청사, 대학 일부에만 반납처가 위치해 있습니다. 휴게소는 전국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다회용 컵 반납하자고 각 대학에 가서 반납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물론 비판적 의식으로 갈 수 있겠지만 첫 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다회용 컵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에도 도입이 돼야 환경 이슈와 연관되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들을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희 위원님 말씀하신 휴게소 쓰레기 산과 공공 이용 장소에 대한 문제들도 내 집 주변이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내가 버려도 “나 하나쯤 버려도 상관없겠지”하는 생각들이 쌓여서 결국 쓰레기 산의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쓰레기 추적 이력제나 제도적 보안을 통해서 문제를 예방해 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숙사 카드 결제 같은 경우는 학칙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카드도 제한되어 있어서 다양한 카드가 아니라 현대카드나 우리카드로 한정된 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학에서 소비자 차원으로 본다면 학생들 학부모들이 소비자일 텐데 소비자 위주에 맞는 대학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보도는 충남대가 그나마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다 정도의 통계 기사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면까지 지적하신 대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이 직결돼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 뉘앙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스크를 더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기사는 확인해서 영상과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시시각각> 관련해서 축제 같은 경우에 실제 축제에 관련된 상인들이나 소비자들의 의견을 담아주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전 VCR 제작을 통한 구성을 다양하게 해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형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박지현 위원님께서 생활 밀착형 뉴스와 화재 대응 요령에 대한 보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생활 밀착형 뉴스 기사들은 충북에 한국소비자원이 있어서 MBC충북에서 중심이 돼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많은 시청자들이 호응하고 관심을 갖는 뉴스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생활 밀착형 뉴스들을 발굴해서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해 대전과 충남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 지자체들이 같은 정책을 놓고 각기 다른 평가를 받거나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서 지자체 간 경쟁도 유발시키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정책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고도화 역할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AI 정책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관심들이 많아서 충청남도나 대전시도 도입을 하는데 일자리의 문제나 아니면 농촌의 문제냐에 따라서 실제 정책으로의 반영들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광역 단위에서 비교해 가면서 더 나은 정책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대리기사 관련 보도는 서울에서 릴레이로 방송됐고 대전MBC에서도 방송됐는데 고민입니다. 저희 단독 기사들이 서울로 올라가는 기사 중 1위를 다룰 정도로 많이 올라갑니다. <뉴스데스크>는 한 프로그램 안에서 서울에 나가는 걸 예측하고 다른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은 안 됩니다. 지역은 분량을 더 붙여서 하고 서울은 분량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터뷰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구성상의 동일함이나 유사함을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경우 다양하게 다른 시각에서 본 뉴스들을 만들어야 하는 게 과제이긴 한데 고민입니다. 현재 취재 인력상 여러 가지 버전이나 다른 뉴스로 대체해서 그 시간에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겹치지 않게 다른 형태나 다른 시각으로라도 앵커 멘트나 내용상의 구성을 조금 달리해서라도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헌 위원님께서 JMS관련 보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획 보도를 하고 있지만 다른 언론들은 다루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있고 계속 힘들어하는 약자들이 있어서 공영방송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창사 특집 뉴스 제목처럼 지역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뉴스를 모토로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힘을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사안들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의 기록자 역할이 뉴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임세혁 편성국장

지난달에 조정현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프로그램 게시판에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 때 관리가 부족해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많이 활용되지 않는 메뉴들은 삭제해서 정리를 했고 라디오 게시판은 남겨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영 위원님께서 <오늘M>과 <테마기행 길>이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M>은 지역MBC 16개사가 모두 이런 종류의 매거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사별로 제목을 달리해서 나가고 있는데 대전MBC는 제목이 <오늘M>으로 나갑니다. 각 지역에서 자체 아이টে을 최소한 2개씩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도 타 지역에 배포할 수 있도록 공유해서 타사에서도 대전MBC 아이টে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유하는 아이টে들은 주로 지역을 소개하거나 문화, 화제성, 레저 활동 등을 소개하는 위주로 가게 되는데요. 타 지역과 교류하는 아이টে 2개가 이영중 리포터의 ‘땀나는 여행’과 한주희 아나운서의 ‘오늘도 갑니다’ 입니다. 대전MBC만 자체적으로 방송되는 코너는 ‘오늘 쉼터’, ‘문화나들이’ 그리고 ‘대충 봐도 꿀잼’, ‘초대석’ 4가지 아이টে들입니다. 지금 PD들이 추구하는 아이টে 중에서 김혜영 위원님께서 다뤄졌으면 하는 아이টে들이 현재 코너에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작진들을 로테이션 하고 있는데요. 국회의 때 생활 아이টে도 다뤄졌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공유하겠습니다.

<테마기행 길>은 최근에 우리 지역 아이টে이 없었는데요. 지역MBC 16개사가 같이 하다 보니까 순서가 16주에 한 번 돌아옵니다. 충남 홍성편을 제작해 놓고 원래는 9월 18일에 방송이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테마기행 길>이 전국 방송이라서 서울에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안게임 때문에 3주가 밀리고 10월 9일도 한글날 특집 때문에 밀려서 10월 16일에 방송이 됩니다. 대전이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는 것인데요. 다만 더울 때 찍었는데 가을에 방송된다는 게 걱정됩니다.

문선혜 위원님께서 ‘오늘 쉼터’에서 공주 떡집 아이템이 나왔는데 인터뷰가 짧아서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이 코너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편안하게 즐기라고 기획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10분 분량을 미니 다큐 형식으로 인터뷰 보다는 영상 위주로 많이 내 보내는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편성이 지나치다고 하셨는데요. 평일에는 아침 8시50분부터 밤 10시까지 아시안 게임 편성입니다. 지역에서 안 받겠다고 할 수 없는 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릴레이를 받아야 판매된 광고들에 대한 지역 배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MBC와 지역MBC 편성국장들이 전체 모이는 회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아시안게임을 하루 종일 전부 편성하지 말고 유동적으로 일부시간대는 로컬 띠를 편성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회사 측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진정재 사장님 마무리 인사로 오늘 회의 마치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오늘 회의는 1시간을 넘겼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준비해 주셨고, 또 최기웅 국장님과 임세혁 국장님 두 분께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진종재 사장
오늘도 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업을 하시면서 오늘 의견을 말씀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충분히 그 노고가 느껴질 만큼 많은 고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행처럼 보도 하거나 제작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시각들을 구체적으로 듣게 되는 것도 소중한 수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이상으로 9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